

### 전남개발공사, 해상풍력 포럼·성과공유회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중모)는 지난 30일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과 공동으로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해상풍력 포럼 및 수혜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분야의 현황 및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소

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57개 기업 및 기관 150여명의 전문가들은 전남 해상풍력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업·기술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광주·전남 14개 기업들의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i@

### 전남대, 용봉 아고라 신년 대담 진행



전남대학교가 '대학과 지역 살리기' 해법을 모색하는 용봉 아고라 신년 대담을 지난 30일 학내 디지털도서관 정보마루에서 진행했다. <사진>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관계를 미국 삼나무인 레드우드에 비유하며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고, 대

학과 지역 간의 상생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취업이 고민인 학생, 대학 재정을 우려하는 직원, 학생 정원의 적정규모와 방향이 궁금한 교수, 여수캠퍼스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여수시민,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궁금한 동문 등에게 다양한 구상과 대안을 내놨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님아 그 강을...' 진모영 감독

#### 오늘 '길위에 김대중' 응원 상영회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등을 연출한 진모영 감독(사진)이 '릴레이 응원 상영회: 진모영 감독이 쓴다!' (GV)를 1일 오후 7시 1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연다. 이번 GV는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개봉한 영화는 인동초의 삶을 살아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파란곡절의 삶과 민주주의로 향하는 여정 등을 다루고 있다. GV에서는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연출한 민환기 감독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진 감독이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영화 티켓을 제공하며, 별도 예매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진 감독은 2015년 제21회 LA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밀레니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여대, MAUM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MAUM교육원(원장 김경화)은 최근 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MAUM(마음)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 행사는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의 환영사와 전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이현주 목사, 대한성공회 윤종모 주교 등의 축사에 이어 사우나

사피로 박사의 '자애명상'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원광대학교 김은진 교수, 계명대 허선호 교수의 인성 교육 실천 사례에 이어 광주대 이미지 교수가 '마음챙김 기반 교육프로그램이 뇌파와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아시아인권문화재단, 베트남에 쌀·생필품 전달



사단법인 아시아인권문화재단(대표 주은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 취약계층에 온정을 전했다. 아시아인권문화재단은 지난 30일 베트남 호치민 빌링시 통호마을 70가정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 주은표 대표는 "한국에 온 이주여성의 진정마음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행사함으로써 이주여

성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호치민 빌링시의 한 관계자는 "빌링시 사람들을 위해 한국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처음이라며 '다가오는 설날 큰 선물을 받아 설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日 군사훈련 거부 퇴학' 故 나승만 선생

#### 광주일고, 명예졸업장 수여



일제 강점기 군사훈련을 거부해 퇴학당했던 고(故) 나승만 선생이 80년 만에 모교인 광주일고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사진>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지난 31일 열린 제99회 졸업장 수여식에서 나승만 선생의 유족에게 명예졸업장을 전달했다. 나승만 선생은 1943년 광주일고의 전신인 광주서공립중학교 4학년 재학 당시 군사 훈련을 거부했다. 이에 그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아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교정을 떠났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팔도밥상 베스트	45 보보보 좋아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다큐 인사이트(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영화가 좋다(재)	15 푸리가 식사교실(재) 4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세 번째 결혼(재)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살맛나는 오늘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이 맛에 산다(재) 1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남녀 결승>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1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스노보드 남녀 하프파이프 결승 외>		
3	00 어린이동물터비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	
4	00 시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거명숲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15 다이노 파워즈 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과물임 인생사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폐막식	15 반려동물극장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KBS 뉴스 40 KBS 중계식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고려 거린 전쟁(재)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도시락 스페셜
12	40 고려거린전쟁 스페셜(재) 50 동네 한 바퀴(재)	40 KBS 재난방송센터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레인보우 버블즈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둘레길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15 시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인간과 바다(재)
07:30 엄마 까투리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레인보우 버블즈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완전 정복! 이탈리아 -영화 같은 풍경, 토스카나>
08:00 당동당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허클 위외의 겨울 4부 끝의 맛>
08:5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1:55 귀하신 몸(재)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파 피그	22:45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09:2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일(음 12월 22일 乙未)

<p>36년생 굳이 부담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48년생 생각을 달리한다면 새로운 일이 보일 것이다. 60년생 급변하는 도량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72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무조건 전진해야 한다. 84년생 완성도를 높인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96년생 고민해왔던 일이 서서히 풀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63</p>	<p>42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4년생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66년생 예상해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78년생 정도의 차이가 심하여 도저히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 90년생 사소한 허점이 위험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02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7, 58</p>
<p>37년생 절제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49년생 신뢰를 분명히 해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61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바가 무너질 수 있다. 73년생 행복의 마당에 들어서는 길목에 놓여 있다. 85년생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한다. 97년생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20, 86</p>	<p>43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가다가 잡힐 것이다. 55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67년생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 91년생 누구고든지 원칙적으로 대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정확해야 한다. 03년생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3, 82</p>
<p>38년생 미묘한 인간관계에 따른 고뇌가 보인다. 50년생 관련시킨다면 문제점이 생긴다. 62년생 유창한 능변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4년생 원칙과 예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책이 아쉽다. 86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98년생 진정한 자식이란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3, 74</p>	<p>44년생 대다수가 원하던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56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할 필요하다. 68년생 모순된다면 양자 모두를 차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80년생 운로가 순조로우니 원해오던 배를 반드시 이루겠다. 92년생 느낌으로만 판단하여 건너왔던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04년생 대신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8, 65</p>
<p>39년생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법이다. 51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63년생 이미 완전하게 결정 난 판국이니 전혀 여지를 두지 마라. 75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87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99년생 회자정리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2, 51</p>	<p>45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57년생 핵심 가치를 파악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69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1년생 맹목적인 집착은 소모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93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05년생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37, 85</p>
<p>40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52년생 뻔한 다 예견하면서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마라. 64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76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될 것이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88년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응대하는 것이 낫다. 00년생 무시태평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62</p>	<p>46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이 있도다. 58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판세이다. 70년생 흐린날 날씨가 개고 짙고 해가 뜨리라. 82년생 생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화목함이 바람직하다. 94년생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06년생 경시할 때에는 역을 당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1, 54</p>
<p>41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53년생 선수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65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실행하자. 77년생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다. 89년생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전혀 개의치 마라. 01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행운의 숫자 : 33, 94</p>	<p>35년생 시간의 안배를 관여해야 실행에 자질이 없다. 47년생 애매한 입장이라면 아예 관여하지 않음이 백번 나은 것이다. 59년생 부드러운 어감의 표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71년생 매우 궁금해왔던 것이 명백히 드러나서 속 시원하겠다. 83년생 중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95년생 흔들리지 말고 태연자약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9, 66</p>